

전주대사습놀이 조직위원회 구성 마무리

공동위원장·당연직·조직위원장 추천 등 16명... 6월 대토론회 통한 의견으로 혁신방안 마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가 뜻을 올렸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오는 9월에 열릴 대회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당연직 3명(도·시·MBC 관계국장), 시의회 추천 1명, 조직위원장 추천 6명(교수·전문가 등), 보존회 추천

4명 등 총 16명이다.

조직위원회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대회 관련 정책 전반을 조율·평가·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직위원회는 2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 전주대사습놀이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심사제도 개선 등 추가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곤 조직위원장은 "40여 년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위기를 이겨내며 '전주의 소리'로 발전해온 대사습의 위상이 실추돼 서야 되겠느냐"며 "대회의 개선 방안 및 심사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대회의 위상 및 대통령상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올해 당장은 기대하기 어

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같은 대사습의 현 상황은 심사 비리 문제가 발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명분이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심사기준 여하에 따라 대회의 위상이 판가를 날 것"이라며 "올해는 공정한 심사하에 잡음 없이 대회를 치르는 것이 우선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악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이 순수한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대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단오, 여름이 오는 소리’ 오늘 남원 사랑의광장서

국립민속국악원은 30일 오후 8시 남원시 사랑의광장 야외 무대에서 ‘단오, 여름이 오는 소리’ 공연을 연다.

이날 무대에는 관현무에서 처음 만난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비롯해 단오의 세시풍속과 관련 있는 창극단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공연에선 ‘단오놀이, 신사철거’로 단오풍경을 노래하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민요와 ‘춘향가 중 춘향이 추천하는 대목’을 방수미와 정민영의 입체창, 단막창극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이어 창극단 김현주 악장의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을 시작으로 남창 특유의 우직하고 호방한 소리가 듣기 좋은 ‘춘향가 중 어사출두 대목’을 리드미컬한 모듬북 반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연시작 2시간 전부터(오후6시)는 단오 세시풍속 즐기기 한마당이 열리며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부채나누기, 수리취떡과 오미자화채 나누기, 단오맞이 팔씨를 경연 대회를 체험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호남-제주, 전통문화 계승에 힘 합쳤다

국립무형유산원, 이달부터 10월까지 '협업교류공연'

7월 26일 전북도립국악원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 무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5~10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전통공연예술기관 5곳과 '협업교류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협업교류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기관들을 초청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며 이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협업교류공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기관들을 초청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나누며 이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기획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일주마루 공연장에서 열리는 공연은 총 6회로 구성됐다.

먼저 오는 3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립



전북도립국악원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

무용단이 제주도 문화를 표현한 '천년의 몸짓, 무' 무대를 마련했다. 제주해녀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기쁜 소식을 기념하고자 또 다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처용무'를 비롯하여 제주해녀를 주제로 한 새로운 감각의 창작춤인 '해녀춤', '제주 여인들', '달라 훈령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6월 28일에는 전남도립국악단이

2016년 창단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시대창극 '호영의 희망일기'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호영의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대의 물음과 국경을 초월한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 월남전의 아픈 역사까지 풀어안는다.

7월 26일과 8월 30일에는 전북도립국악원이 준비한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와 관현악단의 국악콘서트 '가을을 여는 악'을 공연한다. 창극은 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음악극으로 서정적인 관현악 연주와 명창이 펼치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9월 27일에는 광주광역시립창극단이 마련한 가무악 총체극 '가경'을 만날 수 있다. 가무악극 '신의 소리'를 비롯해 '태평성대', 판소리 '심청전'의 백미인 심 봉사가 눈 뜨는 대목 등을 재구성한 단막창극과 박구춤, 판굿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10월 25일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심명 나는 춤과 소박한 사설, 역동 넘치는 가락을 통해 진도지역의 삶 속에 녹아있는 문화를 담은 '진도소리' 공연을 갖는다. /정해은 기자

내달 1일 소리문화전당서 '청소년·대학생 협연의 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오는 6월 1~2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제14회 청소년·제22회 대학생 협연의 밤'을 연다.

협연의 밤은 우리 전통음악의 계승·발전을 위해 젊은 국악인재들을 발굴해 국악원 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 협연자는 매년 도내 고등학교와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먼저 6월 1일 열린 '청소년 협연의 밤'은 전주예술고 2학년 이성재의 '서용석류 대금 산조'를 시작으로 전통문화고 3학년 강유진의 강태홍류 가야금산조협주곡 '파사칼리아', 전주예술고 3학년 이소희의 해금협주곡 '지영희류 해금산조', 전통문화고 3학년 이은지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 전주예술고 2학년 박준영의 생황협주곡 '풍향' 순으로 이어진다.

다음날엔 '대학생 협연의 밤'이 열린다. 전북대학교 국악과 4학년 윤조희의 대금협주곡 '비류'를 시작으로 우석대학교 국악과 4학년 최유리의 피리협주곡 '서용석계 한세현류 피리산조', 전북대학교 국악과 4학년 이정인의 창을 위한 국악관현악 '쑥대머리', 목원대학교 국악과 4학년 태평소협주곡 '호적풍류', 한양대학교 국악과 4학년 송가현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서용석류 태평소 시나위가 펼쳐진다.

공연의 대미는 목원대학교 박종찬·송현준·안산용·양승호의 사물놀이 협주곡 '사기'가 장식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 저녁 6시부터 현장 좌석권을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 전주영상위와 영화촬영 유치 상호 협약 체결

군산시는 최근 (사)전주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정병각)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영화유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최근 군산이 영화촬영의 명소로 각광받는 가운데 시의 영화촬영 유치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성과로 주목되는 만큼 향후 영화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파급력을 발휘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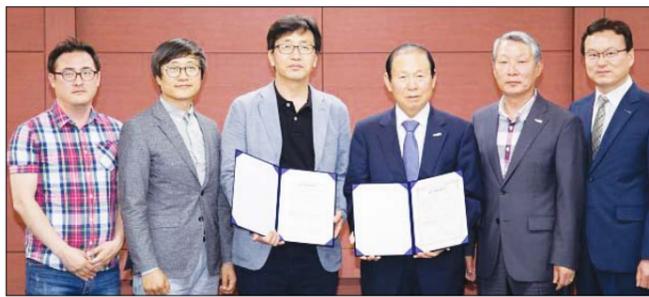
시청 면담실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국·내외 영화 유치활동과 로케이션 지원을 총괄하는 전주영상위원회와 전북도 내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체결된 협약이다.

시는 하반기부터 영화촬영유치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관련예산 확충을 통해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영상위원회 정병각 운영위원장은 "군산은 문화유산을 비롯하여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사가 촬영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으로 가득 찬 도시이다"며 "이번 협약체결을 기반으로 군산시의 상생발전을 통해 전북 영화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영화 촬영을 통한 지역 홍보효과와 관련 영화산업 발전, 관광객 유치, 고용 창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파급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전주영



군산시가 최근 전주영상위원회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 군산만의 영화산업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은 1948년 이만홍 감독의 영화 '젊은진 함로' 촬영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130여편의 영화가 촬영되었으며 올해에만 대형기획사가 제작에 참여하는 10여편의 영화 촬영과 함께 각종 TV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의 장소 섭외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 - 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

